

쥐잡이 사나이의 전설

아주 옛날 하멜시에 기적적인 사나이를 볼 수있었다.

이 사나이는 울긋 불긋한 치마와 울긋 불긋한 스카프를 두르고 자기가 쥐잡는 사나이로 한다.

사례를 하면 쥐를 몽땅 잡아 주겠다고 했다.

하멜 시민들은 그에게 사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사나이는 피리를 꺼내어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여러 구석구석에서 쥐들이 몰려와 사나이를 둘러 싸고 있었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쥐들을 끌고 시네를지나 베저 강에 이르러 모두 빠져 죽이고 말았다.

사나이는 약속한 사례를 받으려고 다시 돌아왔지만 시민들은 사나이에게 사례를 하지않아 사나이는 침울하면서 돌아갔다.

그후 6 월 26 일 다시 사나이는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 사냥군 생김세로 나타나 골목 골목 다니면서 피리를 불었다.

이번에는 쥐들이 모이지않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모여왔다.

사나이는 묘하게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를 넘어 사라졌다.

두아이들은 늦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돌아왔다.

한아이는 장님이고 한아이는 병어리라 그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얼마후에 한 아이가 돌아와 기야기를 한다.

그 아이는 절름발이여서 따라갈 수가없어 돌아왔다고 한다.

그때 사라진 아이들은 130 명이라 한다.

-끝-

이 이야기는 독일인 그림 형제들이 쓴 전설이다.

번역: 김 순 복 uebersetzen: soon bog Fleischer